

△ 콘택스 IIa. 2차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제작된 콘택스이다

명품 카메라의 양대 라이벌 라이카와 칼 짜이스

그 변치 않는 기계공업의 완성품들

•

글 · 사진 이상엽 사진작가

클래식 카메라 또는 엔틱 카메라. 모두 비슷한 말이다. 카메라가 발명된 것이 한 세기 반이나 흘렀기에 세상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을 이런 카메라가 수억대는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1950년대 독일 장인의 손에서 떠난 카메라 제조의 권력을 일본인들이 이어받은 후에 생산된 카메라에는 어지간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이때부터 공장형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카메라가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콘의 F 시리즈가 그런 카메라일 것이다. 하지만 성능만큼은 독일인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그 카메라들도 클래식-엔틱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 라이카 M3. 50년대 생산된 오리지널 라이카 M 시리즈의 모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카메라를 제외하고도 세상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크롬도금을 한 명품 카메라들이 많이 존재한다. 인간의 기계공업 시대의 최고 생산품이 바로 카메라이기에 그 아름다움은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명한 몇몇 브랜드를 열거하자면 라이카, 칼 짜이스, 롤라이, 포익를랜더, 야그파 등등. 열거하고 보니 모두 독일이다. 20세기 초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카메라를 생산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등. 하지만 세계 2차 대전까지 전 세계 카메라와 렌즈 시장을 장악한 것은 독일이었다. 오죽하면 독일의 적국인 미국과 영국군도 독일제품을 사용했을까. 바로 이런 시대에 두 라이벌이 있었다. 지금도 굳건히 세계 카메라 시장에서 명품을 만들고 있는 라이카와 칼 짜이스이다. 라이카는 레인지파인더 카메라인 M형 시리즈를 60년째 내놓고 있으며, 칼 짜이스는 일치감치 일본과 파트너십을 맺고 렌즈는 자사가, 카메라는 일본 파트너가 만들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클래식-엔틱 카메라의 양대 라이벌 라이카와 칼 짜이스를 이야기 해볼까 한다.

결정적인 순간을 담는다. 80년을 이어오는 라이카의 미학

브레송과 라이카. 혹은 라이카와 브레송. 양자간의 관계는 사진가와 카메라, 카메라와 사진가라는



△ 중국 상하이. 콘택스 II로 촬영



△ 중국 항저우. 콘택스 II로 촬영

관계를 넘어 사진사의 전설을 만들어 왔다. 그는 1934년, 24살의 나이에 라이카를 손에 드는 순간 새로운 사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감지했다. 라이카사의 카메라 개발자 오스카 바르낙 역시 심혈을 기울인 이 작고 아름다운 수공예품이 젊은 사진가들에 의해 혁신적 이미지들을 창출 하리라 간파하고 있었다. 결국 브레송이라는 젊은 작가는 라이카의 미학을 완성한 ‘네오’가 되어주었고 오스카 바르낙은 ‘모피어스’가 된 것이다. 이 우연 또는 필연의 만남이 <메트릭스>처럼 라이카의 신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1952년 브레송과 친분이 있던 마티스가 손수 책의 장정을 맡은 <결정적인 순간>이 출간되자 전 세계 사진가들은 경악했다. 이는 사진가가 사물을 보는 철학적 태도에 대한 인문학적 쇼크이기도 했지만 35mm 카메라의 완전한 승리이기도 했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 54년 라이카사는 지금까지의 바르낙형 라이카에서 진일보한 혁신적인 카메라 M3를 시장에 내놓는다. 이제 젊은 사진가들은 큰 카메라를 던져버리고 More rapid(보다 신속하게), More convenient(보다 간편하게), More reliable(보다 확실하게)를 뜻하는 M3를 들고 브레송처럼 자연스런 순간 포착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유럽출신의 로버트 프랑크는 라이카 카메라와 함께 픽업트럭을 타고 미국전역을 여행했다. 게리 위노그랜드는 라이카를 들고 동물원을 어슬렁거렸다. 브루스 데이비드슨은 패션 사진을 찍는 현장에서 라이카를 휘둘렀다. 이제 브레송의 <결정적인 순간> 사진집을 보고 라이카를 들고 다니는 것은 사진의 역사에서 과거와 결별하는 결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콘택스,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카메라

1945년 5월, 독일은 전쟁에서 패전했고 히틀러의 제3제국은 붕괴되었다. 독일은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동서로 분단되었다. 이 때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예나(Jena)와 드레스덴(Dresden)은 소련의 점령지역에 포함되었다. 바로 자이쓰 이콘이 거점도시로 삼고 있던 곳이다. 독일 최고의 광학회사로 명성을 누리던 자이쓰 이콘은 당시 노동자 2만 명을 거느린 초거대 기업이였다.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에 대해 미국과 소련 모두 눈독을 들인 것은 당연하다. 먼저 소련은 전쟁배상금으로 자이쓰 이콘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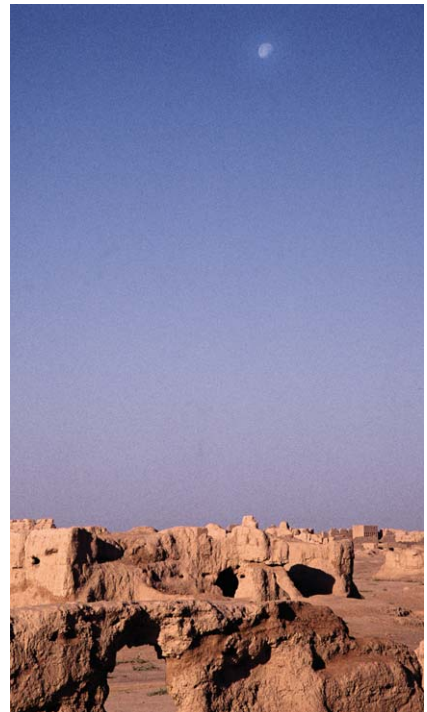


△ 중국 투르판. 라이카 M3로 촬영

했다. 이 때 미국은 자이쓰의 핵심 숙련공 90명을 탈출시켜 슈투트가르트(Stuttgart)와 오버코헨(Oberkochen)에 정착시킨다. 이곳은 동독의 칼 자이쓰 예나와는 다른 '서독의 칼 자이쓰'가 되었다. 독일의 분단과 함께 자이콘 이콘이 만들던 최고의 35mm 카메라 콘택스II는 종말을 맞았다. 이후 동독의 예나는 소련으로 기술을 수출 키에프를 생산하게 되고, 서독의 오버코헨에서는 콘택스IIa를 생산하게 된다.

그렇다면 콘택스II는 어떤 카메라였나? 한마디로 1936년 출시 당

시 최고의 카메라였다. 경쟁자였던 라이카보다 뛰어난 성능과 엄청난 가격으로 사진가들의 선망이 된 카메라였다. 비싼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당시 독일 노동자들의 집 한 채 값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략 노동자의 평균 1년치 월수입이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콘택스II가 출시되던 1930년대 후반은 한창 35mm 롤필름 타입의 소형 카메라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1925년 라이츠사가 라이카를 출시해 35mm카메라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다. 하지만 1936년 자이쓰 이콘의 콘택스II의 출시로 시장은 급변한다. 라이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첨단 기능을 이 카메라가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 카메라가 모두 흡수한 이러한 장점들은 특히 1940년대 전쟁과 혁명기에 현장을 누빈 포토 저널리스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브레송처럼 라이카의 미학적 설계에 빠진 사진가도 있지만, 로버트 카파나 칼 마이던스처럼 전장을 누빈 중군 사진가들은 콘택스를 선호했다.



△ 투르판. 라이카 M3로 촬영

보석같은 카메라의 아름다움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사용하는 라이카 M3와 콘택스II를 책상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 그 옆에는 그만한 명성은 못 누렸지만 명품 반열에 오른만한 톨라이플렉스 2.8F도 있다. 나는 이 카메라들이 독일의 모더니즘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마무리. 평생을 사용해도 질릴 것 같지 않은 카메라들이다. 이 카메라들에는 유럽의 휴머니즘과 과학과 기계가 만난 진보의 이념이 녹아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호사가들의 수집품이 되기도 하고, 유니크한 청년들의 소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 같은 사진가에게는 여전히 믿음직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충전기도 필요 없고 CF카드도 필요 없다. 오직 동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필름만 있으면 된다.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는 느끼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